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Franciscan Missionaries of Mary

# 나눔

희망을 지피는

2020. 1.

## 선교 나눔

“온 세상이 내 고향이다”라는 마리 드 라 빠시옹의 말씀을 따라 전 세계로 파견되어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20)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2014년 11월 인도에서 한국으로 파견받아 온 아로키아사미 사하야 로시(AROCKIASAMY Sahaya Rosy) 수녀입니다.

한국에 온 저는 생전 처음으로 눈(雪)을 보고 신기하기도 했지만 날씨가 너무 추워서 힘들기도 했습니다. 함께 사는 수녀님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지금까지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아름다운 산, 바다와 자연들을 보게 해주신 하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한국어를 1년 반 동안 공부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어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꼭 해야 할 일은 없지만 하고 싶은 마음은 있고, 시간에 쫓겨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고, 의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바쁜 일상 안에서도 의욕을 가지고 공부를 계속하면서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인천 맑은웃음 공부방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었는데, 저를 본 아이들이 “왜 눈이 커요?”, “피부는 왜 까매요?”, “왜 한국에 왔어요?” 라고 물어보며 친구처



럼 대해주어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쳐 주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배우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2017년에 수련원으로 이동하고 두 달 동안 가족방문을 다녀 온 후 새롭게 다시 시작했습니다. 수련원에서 집 안일을 하면서 하느님 사랑의 부르심에 대해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였

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하지만 이들의 마음에는 즐겁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워준 ‘성프란치스코 장애인종합복지관’, 베트남 여성들에게 언어 교육을 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고 다른 나라 문화를 알도록 해준 ‘안산 다문화 센터’,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어르신들이 활력을 유지하고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글라라의 집’에서 봉사활동 하며 그분들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주었고”,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듯이 맞아들였다”(마태 25,36)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들의 즐거운 모습을 보고 저도 즐겁게 생활하였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27일 다시 인천 석남동 공동체로 이동하였습니다. 지금 맑은 무지개 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이제 9개월, 11개월 된 아이와 2살, 4살 된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아기들을 보면서 ‘애기처럼 있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 - 아쉽게 공부방을 마무리하고**

**기 - 기꺼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사회의 필요함을 위해**

**이주민들의 아기들을**

**돌 - 돌보면서 . . . 이주민들을 위한 사도직에 순명하며,**

**봄 - 봄바람에 사랑사랑 설레이고, 나무들이 꽃 피울 준비로 바쁜 것처럼**

**우리도 아기들과 함께 한 시간이 벌써 일년이 되었죠!**

순수한 아이들의 맑은 모습을 보며 살다 보니, 아이들의 순수함과 단순함에 당황하기도 했어요! 한국에 와서 맡은 첫 번째 사도직이라서 걱정했지만, 아기들의 순수한 마음 덕분에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평일에는 아기들과 함께 지내고 주말에는 베트남에서 오신 김 베드로 신부님과 함께 베트남 이주민들이 신앙생활을 깊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문제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분을 위해 관공서, 병원동행 및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물품이 들어오면 그들에게 생필품과 식료품을 지급하고, 미등록인이 임신과 출산을 할 때 필요한 보험을 만들기 위해서 도와줍니다. 이 밖에도 소소한 생활의 어려움이 생길 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믿음과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들은,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시간과 재능을 함께 나눠 주신 선생님, 봉사자들 덕분에 오늘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죠~

아직도 한국어를 잘 못해 답답하기도 때론 하지만 지금은 한국에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 아로키아사미 사하야 로시.fmm

## | 글 나눔

### - 내가 사는 곳을 사랑하는 법

어느덧 2020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해는 어떻게 보낼까? 생각해 보려니, 작년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선 과거를 돌아보며 배우고, 미래를 꿈꾸는 것이 현명하겠지요.

2019년 ‘올 해의 인물’로, 미국 시사 잡지 타임(TIME)지는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16세 소녀 그레타 툰베리를 뽑았습니다. 생태환경운동에서 툰베리가 많은 영향력을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만큼 생태환경문제가 심각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메스컴을 탔네요. 마구잡이로 뒤엎킨 쓰레기를 남의 나라에 불법으로 갖다 버려 국제적인 망신을 샀지요. 과연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쓰레기 문제도 전 지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구를 살리자!’는 말은 너무나 상식적인 말이 되었습니다. 자연과 인간은 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유기체라는 걸 이젠 절실히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는 생태환경을 위해 뭔가를 실천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쓰레기 분리수거? 일회용품 안 쓰기? 정부도 이 문제는 꽤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색깔을 입힌 유리병은 재활용하기 어려우므로 세금을 더 매긴다고 합니다. 커피숍에서는 일회용 컵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덧붙여 조금은 다른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가이자 작가인 가브리엘 마르셀은 “인간은 그가 속한 장소와 분리될 수 없다. 그 장소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속한 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땅값이 얼마인지,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위에 어떤 자연이 있는지, 또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사실, 사람은 자신과 관련이 있어야만 관심이 가고, 관심이 있어야만 애정도 쏟을 수 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생태환경을 염려하자면 어떤 방식으로든 나와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구를 살리자!”는 구호도 그저 허공에다 외치는 공허한 말이 되기 쉽습니다.

거창한 것 보다는, 우선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희 수녀원 진입로에는 높직이 자란 은행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가 대여섯 그루 줄지어 있습니다. 이 나무들부터 관심을 기울여야겠네요. 높이는 얼마인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또 누가 처음에 심었는지, 처음부터 여기에 있었는지, 다른 나무들은 없었는지 등등. 아마도 이 과정에서 제가 몰랐던 우리 수녀원의 옛 이야기들을 알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뵈 적 없는, 돌아가신

선배 수녀님들의 재미난 일화가 나올지도 모를 일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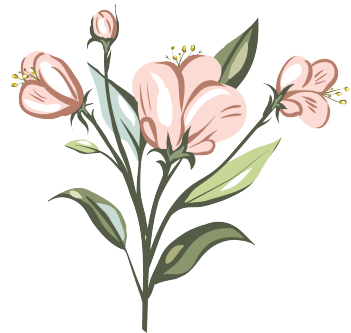
그리고 이 나무들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고 싶네요. 그리고 보니 수녀원에서 기르는 개는 ‘마루’라는 예쁜 이름이 있는데, 이 나무들한테도 이름을 붙여주면 좋겠습니다.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제일 먼저 반겨주는 이 나무들을 지나오면서, 하나 하나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내친 김에 수녀원 앞뜰, 성모상 뒤에 있는 자태 고운 소나무에게도, 청원소 앞 커다란 느티나무에게도 이름을 지어주고 싶습니다. 선화 공동체 앞에 있는 작은 텃밭도 이름을 붙여주고 싶습니다. 서울시, 가리봉, 미아동... 행정구역상으로는 모두 그 땅의 이름이 있듯이, 저에게 의미 있는 저희 공동체 앞 텃밭도 그냥 ‘선화 공동체 앞 텃밭’이 아니라 ‘고유한’ 이름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명제가 생태학의 제1원칙이라면 ‘관계맺음’은 생태문제를 극복하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 후원회 가족들께서도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아무리 삭막한 아파트라 해도 자주 지나다니는 곳에 가로수라도 한 그루 있을 것입니다. 일터에도 있지 않을까요? 작은 관목 하나, 꽃 한 송이 하나에도 내가 의미를 부여하기 나름입니다. 올 한 해, 내가 사는 곳을 더 잘 알고 사랑하게 되기를. 작은 걸음부터 시작해 보려 합니다.

- 이영주 스텔라.fmm

## ▶ 프란치스코 교황님 새해 결심

1. 험담하지 마십시오.
2. 음식을 남기지 마십시오.
3. 타인을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4. 검소하게 사십시오.
5. 가난한 이들을 몸으로 가까이 하십시오.
6.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7. 생각이 다른 사람과 벗이 되십시오.
8. 맹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9. 주님을 자주 만나 대화하십시오.
10. 기쁘게 사십시오.



## 수녀회 소식 - 종신서원식

사랑이신 하느님의 부르심에 온 생애를 바쳐 응답하려는 네 수녀님들이 종신서원을 합니다.

일 시 : 2020년 2월 1일

장 소 : 살레시오 관구관

주 례 : 호명환 가롤로 관구장(작은형제회)

수녀님들이 부르심에 충실히 응답하며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함께 기도해요.

황혜숙 골롬바, 김도영님께서 암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영희 노엘라, 김상희 필로리아노, 홍복희 스테파노, 정영자 헬레나님께서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느님 품 안에 편히 쉬실 수 있도록 고인을 위해 그리고 유가족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알려드립니다

연말소득공제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혹은 문자로 연락 주세요. 이 메일이나 팩스로 발송 해드릴 수 있습니다.

2019년 기부금액 확인은 홈텍스에서 1월 15일 부터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 기부금)

자동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도장,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아래 은행을 방문하셔서 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재)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

국민은행 362737-04-000395

농 협 100072-51-060834

\* 후원금이 아닌 미사예물이나 봉헌금은 다음 계좌로 보내주세요.

농 협 352-1499-1313-23 예금주 : 김계숙

후원회 : 010-2821-8174 수녀원 : 02-865-8174

E-Mail : fmmssp@hanmail.net

## 회원님들의 희생과 수고, 사랑으로 보내주신 후원금에 감사드립니다.

12월1일 ~ 12월31일까지 입금하신 후원자 명단

(재)고려문화재단 강경아 강미현 강승완 강신연 강연호 강지우 고대완 고월순 고유연  
고재영 고지영 고희숙 공해용 광채현 구로구지회 구옹회 구유회 구윤정 구인순 권순익  
권영오 권용훈 금부동 금창호 김경미 김광기 김광자 김귀선스테파니아 김기덕 김남기  
김덕칠 김도상 김도영 김동일 김동현루가 김두현 김득수 김득현 김미리 김미애자 김민규  
김미정(제이투건설) 김병수케냐 김상규 김상률 김상연 김상태 김셋별 김선옥 김수자세실리아  
김선옥 김성원 김성철 김성환 김수경 김숙자만나 김순철 김시운 김시준 김애자 김연진  
김영옥 김영재(허갑수) 김영주 김영준 김영희 김옥림 김옥주 김용덕 김용수 김용자(윤소라)  
김용주 김용준 김원진 김유정 김정숙마리아 김정웅(김명신) 김정임엘리사벳 김정주  
김정혜정구충 김정화 김종연 김주옥 김준희 김지혜 김진미 김진선 김진숙알데군다 김진식  
김진옥 김철형 김춘자루갈다 김춘자안나 김태옥 김해자 김현숙(최지명) 김혜겸 김호생  
김호송 김홍양 김희재 나숙희 나인준 나정순 남봉원 노미경 노병덕 노봉근 노석심 노연주  
노유리 노정애 당효준 류순자 명영희 문경희 문성식 문준식 민정웅 박말순 박민선 박병옥  
박병주 박성근 박성길(정은아) 박성준 도미니코 박순옥 박승민 박양순 박연애 박원서  
박용숙데레사 박윤실 박은정 박은희 박인호 박재용 박정선 박정순(임현서) 박정식 박정연  
박찬순 박태분 박향식 박현희 박홍권 박화자 박희수 박희순 방진 배수정 배운숙 배인호  
배철희 백미자 백성대 변복자 삼성동성가정나눔회 서덕순 서춘자 서태진 서현수 서혜석  
성상모 성영주 성옥이 소재록 손순덕 손은주 손정례 송명순비아 송승윤(김영임) 송영희  
송정애 송혜경 신승일 신주화 심귀선 아가맘2호 안미령 안양금 양미경 양영자 양윤석  
양종한 오숙자 오영희 오옥형(최민귀) 오지연 우영희 운남동빈첸시오 원ENG 원선주  
원세경 유경혜 유미경 유병춘 유시연 유영재 유은분 유은정 유춘성 유혜정헤레나 육동배  
유희숙프란치스 윤경숙(제일) 윤군자 윤규현 윤명희 윤문섭 윤미숙데보라 윤보미 윤봉수  
윤미숙파우스티나 윤순자 윤정희 윤한희 윤현숙 이갑수 이강모 이경로 이관훈 이광희  
이근태 이기향 이기혁 이남순 이덕호 이동세 이동준 이동현 이명순(이선영) 이명혜 이미자  
이민희 이복순 이상문 이선경(송창훈) 이선경젼마 이성엽 이성원바오로 이성혜(유주영)  
이성혜(유주영) 이연신 이연재 이영란 이영미 이영애 이영혜 이옥자 이용길 이용수 이윤신  
이은수 이은정 이은주 이인동 이인숙 로사 이정란(최윤) 이정숙데레사 이정숙마리아  
이정숙수산나 이정원 이정준 이종옥 이준우 이지아 이지인프란체스카 이태금 이향남  
이해일 이현순 이혜숙 이홍식 이화경 이희량 인용석 인후작은형제 임수남 임승옥 임지원  
임혜숙 임호 장민정 장세옥 장영표 장원태 장은미 장현아 재속프란치스코회야음 전순자  
전영관 전제관(대아측량토목) 전충엽 정경원 정경필 정난주성당 정득근 정명국 정미영  
정복순 정부강 정성민 정소영 정숙자 정승한 정영숙 정옥희 정재영 정진명 정향숙젼마  
정혜경 정희파키스탄 조금숙 조명숙 조상위 조석금 조용자 조혜영 조희공 조희무  
주)가나스틸 주)전방재엔지니어링 지정희 최두진 최미양 최선애 최성순 최숙규 최순애  
최연희 최영숙 최영애 최옥자 최원단 최원철 최인석 최일순 최지은 최향미 최혜정 추상식  
추수옥케냐 추영숙 추종현 태계남 토마스아퀴나스 파키스탄박진 하옥경 한기훈 한순옥  
한순희 한영미 한옥선 한은희 한진경 한효정(권오현) 허정자 현경미 홍말숙 홍명숙  
홍미자 홍민선 홍민희 홍성란 홍세아 홍수봉 홍승희 홍은숙 홍익기 황경희 황달수 황인복  
황정숙